

# 전국소리꾼들의 꿈의 무대 열린다

국창 정정렬 명창 추모 '익산 전국판소리대회' 15일 개최

국창 정정렬 명을 추모하는 판소리대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11일 (사)익산국악진흥원에 따르면 '제19회 전국 판소리경연대회'가 오는 15일과 16일 스포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국악 꿈나무 발굴,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지역 출신 국창 정정렬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익산국악진흥원과 (사)한국국악협회 익산지회부가 주관해 진행된다. 일반부 대상에게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신인부 대상에게는 전북도지사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또 초·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북도교육감상인 대상을 놓고 경쟁을 펼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둘째 날 정정렬 국창을 추모하는 공연이 윤화중(전북대) 교수의 살풀이 무대로 시작된다.

또 김강수·정민영·송세운·손재영·임재현·김은석씨가 액막이타령과 진도아리랑을, 남원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화영 명창과 김향순·천희심·김태희 명창 등이 육자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임창현·정지웅·송세엽·국은예·고갑렬·배유경씨가 기악반주로 국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국창 정정렬 명창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돼 오고 있는 이 대회는 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쌓고 있다. 특히 매년 대회가 성장하고 있어 판소리 고장 익산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화영 익산국악진흥원장은 "판소리는 우리 민족만이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많은 소리꾼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제17회 고창전국시조경창대회가 최근 동리국악당에서 정토진 고창 부군수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회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전국 시조창 소리꾼 고창에 총 출동

전국시조경창대회 고창서 열려... 전국 각지 시조 동호인 200여명 참석

제17회 고창전국시조경창대회가 최근 동리국악당에서 정토진 고창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문화·예술단체 회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사)대한시조협회

고창군지회(지회장 정재선)의 주최로, 전국의 시조창 소리꾼들이 참가해 그간 연습한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대회는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민족 전통 문화인 시조창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번 대회 장원은 대상부에 출전한 강진엽(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씨에게 돌아갔다. 이어 평시조부 고순금(남원시), 사설시조부 김안나(순창군), 명창부 강명자(인천시)씨가 각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대한시조협회 고창군지회 정재선 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조인의 화합을 다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사랑으로 행복한 시민, 공감 문화도시 정읍'

둘레,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통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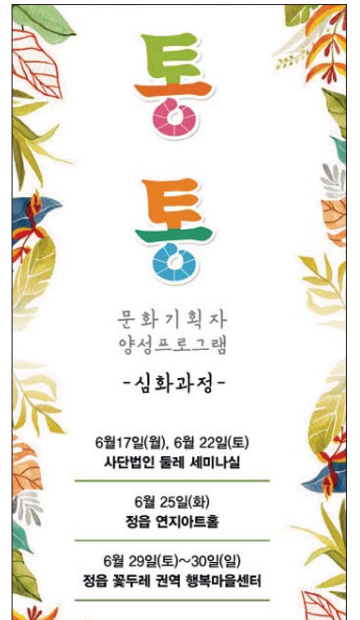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인 (사)둘레가 정읍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인 '통통'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통통'은 새로운 실험과 도전, 다양한 상상력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문화를 '열다·담다·있다·만들다'라는 4가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7일 (사)둘레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통통' 심화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2일 심화 강의와 기획안 작성, 25일 공연 현장답사, 29일~30일 네트워킹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수용 둘레 이사장은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통통'은 매년 시리즈로 운영될 예정이며 심화 과정은 기초과정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역량 강화와 시민이 주도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통'은 지난 4월 기초과정 운영 이후 우수한 전문 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돼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법민 둘레 홈페이지(dul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전통 문화 복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방방곡곡 전통놀이 전국 공모전 26일까지 접수

사라져가는 고유의 전통놀이 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단위 공모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당이 주관하는 전통놀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방방곡곡 전통놀이 공모전'은 오는 26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청년문화 기획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중문화로 편향되고, 차별화된 콘텐츠 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대표 축제·행사에 공동체 문화 형성의 밑거름이 될 전통놀이를 접목, 전통이 친근한 문화로 인식되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지역 전통놀이를 발굴, 재현, 현대화하고 문화 향유가 가능한 행사와 축제 등을 진행함으로써 전통놀이 생활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놀이의 현대화와 전통 놀이문화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주도에 참신하고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

굴·지원 중이다.

지원 분야는 ▲일반 공모(전통놀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청년기획 공모(팀 구성, 팀별 최대 5인 구성)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일반 공모는 7개 단체 내외로 선정하고 단체별로 각각 2500만~3000만원(자부담 15% 필수)까지, 청년기획 공모는 12개 단체 내외로 선정해 각각 지원한다.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전 워크숍과 현장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거쳐 우수사례 2곳을 선정,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전통놀이의 보존은 물론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 놀이 발굴·재현'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전통놀이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현대화'가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